

05 2026 vol.625

# 만남



사랑합니다

## 교회표어

복음의 능력으로  
충추는 교회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예배

선교

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

## 5월 목회력

- 01 금 ·구역모임의 날
- 02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 03 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유아세례식,  
찬양예배 성찬
- 10 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 11 월 ~ 13 수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
- 16 토 ·영락 가족운동회
- 22 금 ·심방준비회
- 22 금 ~ 24 주일 ·청년선교비전
- 24 주일 ·성령강림주일, 사회봉사주일

# CONTENTS



## 16

### 이달의 말씀

02 아직 잘 지키고 계시나요? 가정 \_ 김운성

### 특집 I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

- 05 서로 돕는 부부, 친밀한 부부 \_ 홍장빈
- 08 4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 \_ 유승아
- 12 다름의 인정을 넘어 사랑의 동역자로 \_ 김혜진
- 14 기도로 키운 네 자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 \_ 김승환
- 16 어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찬양예배 \_ 송양훈

### 특집 II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학교

- 18 함께 자라온 교사로서의 8년 \_ 박지은
- 20 무너지고 힘들 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_ 김어진
- 21 사춘기 한가운데, 하나님은 중등부를 세우십니다 \_ 배윤준
- 22 선생님의 기도 위에 더 단단해진 믿음 \_ 홍태인



## 24

### 청년광장

- 23 웹툰 - 사랑은 뭔가요?
- 24 처음 온 벗도, 꿈꾸는 벗도, 함께 걷는 대학부
- 26 이화여대 캠퍼스에 복음의 문이 열리다 \_ 김지윤

### 만남 그리고 사람들

- 28 무너진 삶 끝에 다시 영락으로 돌아온 탕자 \_ 남영희
- 30 엄마의 구역예배, 내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다 \_ 강미정

### 영락 글로벌

- 32 김정혁 이스라엘 선교사 인터뷰 \_ 인 미

### 땅끝까지 이르러

- 35 영락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소개 \_ 신관섭
- 38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 소망을 꽃피우다 \_ 이미숙

## 44

### 영락의 울타리

- 40 어릴 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_ 심창근
- 42 제66회 산상기도회 \_ 승윤영
- 44 환경직목사기념주간 행사 \_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 48 환경직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 \_ 조명환
- 50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 동향 \_ 오세정
- 53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_ 인 미
- 54 영락시어터 5월 상영 영화 \_ 문화선교

### 교회소식

- 55 부활의 증인이 되자 외
- 60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_ 이은혜
- 61 새아기 새가정

# 아직 잘 지키고 계시나요? 가정

김운성 담임목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시편 128:1~6)

- 1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설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 2 고요한 밤 달빛도 창 앞에 흐르면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하리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 어디노  
별레 우는 곳에 아기별 눈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노래의 본래 제목은 ‘홈 스위트 홈, Home Sweet Home’인데, 변안되면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졌습

니다. 가사는 미국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지었고, 헨리 비숍이 곡을 썼습니다. 남북전쟁 때 강을 경계로 대치한 상황에서 한 병사가 하모니카로 이 노래를 연주하여 전투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의 인생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열 세 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도 세상을 뜨자, 그때 부터 집이 없었습니다. 웅변 선생님이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배우가 된 그는 미국 배우 최초로 영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초라 해도 내 집만 한 곳은 없다.”라고 말한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1842년부터 튀니스 주재 미국 영사로 지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기 일 년쯤 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

정의 기쁨을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의 맛을 모르고 지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라고 탄식했습니다. 위 노래의 가사를 쓴 것은 역설적으로 파리에서 무일푼으로 떠돌던 때였는데, 이 노래는 가정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고향 공동묘지에라도 묻히길 원한다.”라고 유언했고, 그의 사후 31년이 지났을 때, 미국은 군함을 보내 유해를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던 날 대통령과 많은 시민이 그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존 하워드 페인, 편안히 잠드소서.”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야 육신을 누일 집을 얻은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감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 가정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36.1%에 이르고, 가구 수로는 804만 4,948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39.9%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학업과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렇다 보니 ‘함께’, ‘사랑’ 등의 단어가 더 그리워집니다. 혼자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사람의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돈, 애정, 편리함 등의 가치를 가정보다 더 앞세웁니다.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가정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런 흐름의 배후에는 가치관의 붕괴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것으로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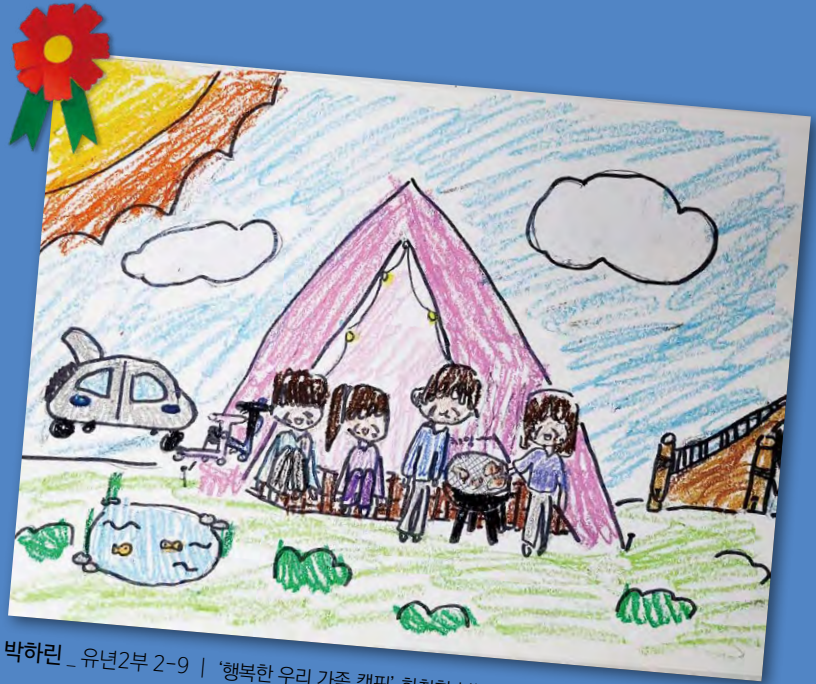
높아진 1인 가구 속 무너지는 가정  
일시적 가치를 넘어  
성경에 흐르는 가정의 복을 기억해야  
존엄과 평등에 기초해 믿음으로 지킬 사명  
은혜 안에 거하는 즐거운 나의 집을 지켜라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두는 많은 것들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로 보면 일시적일 뿐입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 생명과 행복을 이어주는 것은 가정뿐입니다.

게다가 매우 악한 흐름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양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다양한 악법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동성애, 동성 결혼, 사회적 젠더, 무제한 낙태 등을 주장합니다. 이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사악한 사탄의 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건강도, 학업도, 성공도 가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복 중 하나가 가정을 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배후에 그의 가정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한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 곧 부부와 자녀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할 것 소원합니다. 악한 세상에서라도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잘 지키고 계십니까? 끝까지 가정을 통한 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한남**



박하린 \_ 유년2부 2-9 | '행복한 우리 가족 캠핑' 화창한 봄날 엄마 아빠가 구워주신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 사랑이 자라고, 감사가 꽃피는 5월

5월, 우리는 가정 안에 깃든 사랑을 먼저 바라봅니다.

부부는 기도로 서로를 돕고,

부모와 자녀는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세대를 잇는 믿음은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웁니다.

짧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스승의 날, 교회학교의 사랑도 함께 바라봅니다.

선생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제자들의 감사와 회복 속에서

다음세대는 다시 일어섭니다.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랑이며,

선생님에게도 섬김의 기쁨을 안겨 주는 은혜입니다.

# 서로 돕는 부부, 친밀한 부부

##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려는 작은 실천에 관한 이야기

〈새롭게 하소서〉  
홍장빈 박현숙 부부  
영상 보기 ▶



“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아내의 이 기도가 나의 결혼 생활을 바꿔 놓았다.

나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어떤 일이든 미루다가 마감이 닥쳐서야 처리하는 습관이다. 학창 시절에 벼락치기로 시험공부했고, 사역자가 되어 설교와 강의를 할 때도 미루다가 급하게 준비했다. 약속이 있을 때도 늦게 출발할 때가 많았다. 어릴 때부터 굳어진 습관이라 결혼 후에도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아내에게 여러 번 잔소리를 들어도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 나의 이런 습관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할 때면 잠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노력도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던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 늦은 출발, 뜻밖의 한 마디

아내가 어느 교회에서 강의하는 날, 내가 데려다주기로 했다. 어차피 그날은 오후 시간에 내가 차를 사용해야 했고, 아내가 대중교통으로 그 교회까지 가려면 많이 불편했기에 호기롭게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아내는 고마워

하면서 일찍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뒤늦게 시계를 확인했다. “이런, 늦었네! 빨리 가자!” 하며 내가 오히려 아내를 재촉했다. 가는 도중에 출근 시간과 겹치면서 도로는 차량으로 꽉 막혔다. 아내는 강의 시간에 늦을까 봐 점점 초조해했고, 나도 늦게 출발한 것을 후회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교회의 어머니기도회 담당자에게 전화받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이제 와서 내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아내의 눈치를 계속 살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안정을 찾고 편안해 보였다. 이상했다.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교회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복잡한 복도를 지나 본당이 있는 옆 건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면 더 늦을 것 같아서 본당 입구로 연결되는 계단 앞에 차를 세웠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나를 바라보았다. 밝은 표정과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나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오늘따라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다면서 변명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아내의 따뜻한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에게 고맙다



홍장빈 목사  
패밀리타임 네트워크  
YWAM 국제대학사역  
어드바이저

는 말이 진심으로 여겨져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차에서 내린 아내는 급하게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져 계단이 높았다. 아내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 성경책과 강의 노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힐 때 목에 두른 머플러가 풀려 바람에 휘날렸고, 아내의 자세가 불안해지더니 넘어질 뻔했다. 체력이 약한 아내는 걷다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바라보는 내내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아내가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했다.

그날 나는 진심으로 결심했다. 다시는 늦지 말자. 일찍 출발하자.

### 나를 새롭게 한 부부 대화 시간

그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사과했다. 당신이 높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업에 늦어서 계단을 뛰어가던 학생 시절이 생각났다고 아내가 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어보았다.

“교회 갈 때 차 안에서 왜 화를 내지 않았나?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변명할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아무 말 없던데. 혹시 기도하고 있었나?”

“아! 그때 나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어.”

“무슨 기도? 강의를 준비하는 기도?”

“그게 아니고, 나와 당신을 위한 기도였어. 내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아내는 처음에는 “강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달

라고 기도했고, “당신 때문에 늦었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불안하고 화난 마음을 달래며 기도하는 사이,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떠올랐다고 했다. 아내는 그 순간 “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만으로도 마음이 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깨달음도 주셨다고 했다.

‘시간을 내서 아내를 태워 주려 한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가. 남편의 마음과 수고가 참 감사하다.’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을지라도,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임을 아내는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서 말했다고 한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늦게 도착했음에도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는 아내의 말이 큰 울림이 되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아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진심 어린 미안함이 일어났던 것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만약 아내가 차 안에서 나에게 화를 내면서 내 잘못을 지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는 방어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거나, 오히려 큰소리를 쳤을 것이다. 반성과 뉘우침은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나를 탓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직접 두드리셨다. 그날 저녁, 부부 생활의 소중한 공식을 찾았다. 지금도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부부의 약속이다.

- 기도로 서로 돕는 부부가 되자.
- 장점은 인정해 주고 단점은 기도해 주자.
-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자.

그날 이후, 나는 강의 시간에 늦지 않는다. 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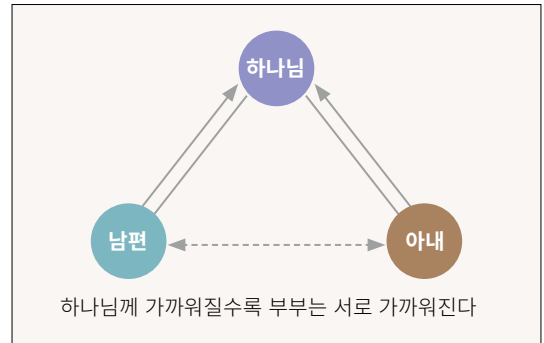
###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쉬운 반응은 잔소리하는 것이다. ‘고치라고! 좀 고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말 몇 마디로 오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 지적받는 순간에는 움츠러들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되는 잔소리는 배우자의 마음에 벽을 쌓고, 두 사람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든다. 단점을 지적하다 보면, 그 단점에 가려서 장점도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의 단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일하신다.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누구든지 스스로 깨달아야 비로소 고칠 수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단점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다.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부분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진다. 점점 더 친밀한 부부가 된다.

### 삼각형의 원리

결혼 전에 익숙했던 자신의 습관이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면 마땅히 고쳐야 한다. 결혼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서로의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기도한다. 배우자의 어떤 단점 때문에 기도했는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면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따뜻해진다.

부부 생활의 교과서인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윌터 트로비쉬)에서 강조하는 삼각형의 원리와 같다. 꼭짓점인 하나님을 향해 남편과 아내가 각자 나아갈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워진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응답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이며, 부부가 친밀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장점을 늘 말해 주고 단점이 보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는 하나가 된다.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말해 주고, 내 오랜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준 아내가 나는 참 좋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8) **만남**

#### ▶ 홍장빈 박현숙의 서로 돕는 부부 5가지 약속

1. 기도와 격려의 말로 돕는다.
2.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한다.
3. 취미 생활을 응원한다.
4. 은사 계발과 비전 성취를 돕는다.
5.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지원한다.

#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



유승아 집사  
서초교구

저는 박봉수 안수집사, 故 황문남 권사의 며느리 유승아 집사입니다. 남편 박세현 집사와 2013년 5월 결혼을 하면서 영락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소년부 박지유(6학년), 유년부 박선유(1학년)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지나온 세월 가운데,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합니다.

## 믿음의 여정 시작하신 신앙의 1세대, 故 권용규 권사

시할머님인 故 권용규 권사는 하나님과 영락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연로하셨어도 여장부의 기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교사로 10여 년간 섬기셨으며, 새빛장학회를 만들어 임마누엘 장애인 복지재단에 장학금 기탁, 화약산 정상 공군기지 재건축 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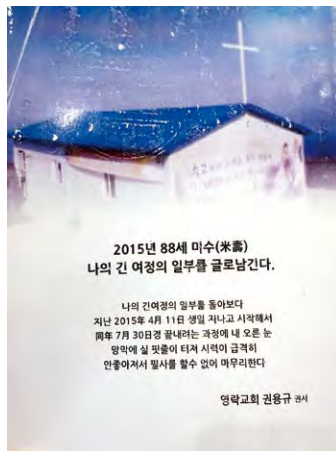
기탁 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동안에도 성경 필사를 꾸준히 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주신 주님과의 여정을 친필로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신앙 여정을 담은 책을 읽고 있노라면 할머니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도 “가다가 길이 막힐 땐 전능하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故 권용규 권사 기록물



##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린이와 같으셨던 어머니, 故 황문남 권사

지난 2022년 10월 소천하신 시어머님 故 황문남 권사는 소녀같이 밝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셨습니

다. 고등부 교사 20년, 제3여전도회 지회장, 제2여전도회 임원, 구역장 등으로 섬기셨고, 시어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며 두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셨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과 교제를 결심하게 된 것도 시어머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20대에 타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막연히 시부모님이 중고등부 교사였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고, 남편과 교제 여부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만나보자.’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4대 신앙의 기둥이셨습니다. 가족 각자가 좌충우돌, 흔들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맞벌이하는 저희 가정을 위하여 첫째 지유를 양육해 주셨는데, 어머님 덕분에 지유는 구역 모임과 교회 행사에 가서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교회 시스템을 잘 몰랐던 저를 대신하여 지유를 찬양대에 일찍이 세워주셔서, 지유는 지금도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로, 할머니처럼 영락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약 8년간 암 투병을 하시다가 2022년 10월 샘물호스피스에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하늘 가시는 길까지도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으셨던 어머님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박봉수 안수집사 DTS 졸업식 사진

### 일본 땅에서 씨 뿌리는 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시아버님, 박봉수 안수집사

시아버님이신 박봉수 안수집사는 일터에서 38년 근무 하시면서 고등부 교사 및 활동 부서 부장, 의료선교부 등에서 섬기셨습니다. 근무하시던 직장을 은퇴하신 후, 평소 직장생활 중에 자주 출장길에 올라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일본 오사카에서 선교 및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2022년 12월 직장 은퇴를 생각하면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거나 일본비즈니스 다녀와서 올린 글들을 『만남』에서 계속 찾아 읽으면서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사카 예수전도단(YWAM : Youth With a Mission)에 청년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65세였던 2023년에 오사카YWAM에서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제자훈련)를 5개월간 받으셨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아버님의 DTS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전도지



오사카에서의 전도 활동



하고 있으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일본 땅에서 씨 뿌리는 자로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아버님의 선교 여정을 보고 있노라면, 저희 가정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졸업식에 참석했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며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DTS 훈련을 마친 후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에 다니며 일본 선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전도지를 준비하셨는데, 머느리인 저는 아버님께서 작성하신 전도지 디자인을, 손녀 지유는 그림을, 남편은 인쇄를 맡아 온 가족이 함께 만든 전도지를 준비하여 2025년 4월 1일 오사카로 출발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주중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한오사카교회(재일교포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오사카 뱍티스교회(일본인 교회)를 만나게 되어 섬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뱍티스교회 근처에서 노방 전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기자전거 한 대에 늘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갖고 다니며 지하철, 상가 등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를 넘지 못

### 기도의 열매 우리 가정...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남편 박세현 집사와 저는 같은 대학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락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대학 진학 후에는 영락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상왕십리역의 작은 교회에서 친정 가족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저희는 결혼을 계기로 영락교회에 신앙의 동지를 틀었습니다.

20대에는 나름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했음에도 취업,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일어난 삶의 변화는 마치 파도처럼 저의 신앙을 흔들어댔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에는 교회 출석을 하지만, 삶의 다양한 문제를 대하는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은 저희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은 지키자.’라고 생각하며



필리핀 선교지에서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

드렸던 주일예배와,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결심하며 이어 갔던 『말씀 산책』을 통하여 주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2022년 10월 이후, 다시 말씀과 상황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막바지였던 2022년 7월, 저는 심각한 공황 발작 증세를 경험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던 차나, '그곳에서 예배하라.'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 작은 순종은 회사에 공식 신우회가 세워지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또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때 가져다주셨지만 읽지도 않고 치우기 바빴던 『만남』을 사랑하게 되어 기자로까지 봉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보낸 후 상실감에 힘들어할 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참 부모이신 주님과 더욱 연결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사 교육을 수료한 후, 회사에서는 출근하는 작은 예수로 회사를 섬기고, 교회에서는 부부선교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변화는 저희 가정을 필리핀 선교지로 이끌었습니다. 2025년 12월, 부부선교회와 청년

선교회가 함께하는 필리핀 선교를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땅과 사람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일본 땅에서 선교하시는 아버님과 조금 더 연결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의 변화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를 결혼과 함께 떠나보내셨지만, 항상 기도하시는 친정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시할머님, 시부모님의 기도,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도에 이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만남**



시어머니 故 황문남 권사 소천 전 찍은 가족사진

## 다름의 인정을 넘어 사랑의 동역자로...

### 서로 다른 성향 안에 있는 사랑

제 가족은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아빠 이영훈 집사, 말보다는 행동과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 부모님과 동생을 잘 챙기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착한 첫째 아들 주찬이(초4), 발달장애(자폐)가 있어 느리지만 누구보다 환한 웃음을 가진 우리 집의 사랑둥이 막내 은찬이(초2)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애정 표현과 공감을 잘하고 감성이 풍부한 감정형입니다. 반면에 저는 공감보다는 사실 파악과 해결을 우선시하는 사고형에 가까워요. 남편과 저의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 일상과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아이들을 수용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서 버릇없이 클까 봐 걱정이 많았고, 남편의 입장에서 저는 너무 엄격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아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메리지코스 광고를 보고 남편이 신청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제게 감정의 공감이나 사랑 표현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의 이야기에 공감 없이 사



김혜진 집사  
강동·송파교구

실로만 대답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남편이 저의 대답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저 또한,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할 내가 행동과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은 왜 몰라주는 것일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메리지코스’는 상담부에서 운영하는 부부학교로, 성경적 관점에서의 부부 이해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2026년에는 10월에 진행한다. 사진은 김혜진 이영훈 집사 부부가 2025년 메리지코스에서 찍은 가족 사진.

실로만 대답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남편이 저의 대답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저 또한, 감정적으로 크게 요동할 내가 행동과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은 왜 몰라주는 것일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 메리지코스가 열어 준 이해와 대화

메리지코스 첫 주에 진행한 에니어그램 검사는 저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보완할 날개 부분 등 아주 상세한 검사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남편과 저는 톱니바퀴 모양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담부 정효진 전도사님께서 저희의 검사 항목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우리 가정과 부

부 안에서 각자 가진 성향과 역할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각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존재로 서로를 재발견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상대방의 성품이, 사실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메리치코스 이후, 남편과 저는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네.”, “고마워요.” 등 마음속에만 있던 말을 할 때, 남편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을 쓸어 주며 짧게 기도하거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많이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 가정예배가 세워 준 기도의 동역자

저희는 작년에 가정예배학교도 수료했었는데, 가정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가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거나 새벽기도회를 가자고 할 때면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남편과 저 모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푸념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 광야 한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들, 발달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일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금요기도회에 가서 하나



가정예배를 통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의 시간

님께 내려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찬양 가사를 통하여 세밀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이에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도리어 발달장애 아이로 위로와 동정의 시선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저희 가정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정말 문자 그대로 느낀 2년이었습니다. 힘들음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의 힘과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샘물을, 비를, 아니 제가 상상도 못 한 찬란한 오로라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사랑의 동역자로 세게 될 것을 꿈꿉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메리치코스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성품과 달란트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세워 가는 첫걸음에 도움을 줍니다. 큰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가정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세워나가는 것에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남**

## 기도로 키운 네 자녀,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정



김승환 성도  
서초교구  
부부선교회



### 웃으며 말한 '넷', 기도로 지나온 시간

결혼 전 자녀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 둘 다 막연히 '넷'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웃음 짓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호기로운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저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주변 가족들의 헌신과 기도는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반복되는 잔병치레를 비롯하여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여러 도전이 끊이지 않았고, 바쁘다는 핑계 아래 신앙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공동체 안에서 다시 찾은 믿음과 결단

셋째까지 낳아 기르며 혼란스럽던 때에 부부선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게 된 것은 저희 가정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교제와 사랑은, 숨 가쁘게 이어지던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신앙과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여겼던 무게가 나누어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로 섬기며 닦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닦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변화의 기적을 보여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네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을 가까이에서 보며, 막연히 어렵다고만 여겼던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공동체를 함께하는 가정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단 끝에 막내까지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은 네 아이와 함께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 교회가 품어 준 네 아이의 성장

네 자녀를 키우며 아이를 양육하는 데 공동체의 도움이 얼마나 귀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저희 가정에 단순한 신앙생활의 공간을 넘어 실제적인 양육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유니게 학교를 통해 부모로서 말씀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축구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봄맞이성경학교,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이 친구

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모인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아부부터 CebC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심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맡겨 주신 네 생명, 끝까지 순종하는 가정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가복음 10: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성장기의 네 아이를 키우며 그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거침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생명이고, 우리는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네 자녀와 함께하는 삶은 처음부터 저희의 계획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맡겨진 삶에 성실히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어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찬양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양훈 집사  
노원교구  
부부선교회 회장



부부선교회 찬양예배



부부선교회 자녀들은 놀이공간에서 함께한다

## 아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어려움

저는 네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많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찬양과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 예배가 끝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오늘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아이가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씀 시간에는 지루함을 느껴 보채거나 큰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간식을 챙겨줘야 할 때도 있고,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흐름이 끊기고, 다시 집중하려 해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반복됩니다.

또한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올 3월 베다니광장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찬양예배' 홍보



2025년 부부선교회 가족 가을야유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아이를 조용히 시키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때도 많습니다.

### 다시 누리게 된 찬양예배의 은혜

하지만 부부선교회 찬양예배와 모임을 통해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문득 청년부 시절 드렸던 찬양예배의 은혜가 다시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던 그때의 감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 가족이 함께 드리는 따뜻한 예배

부부선교회는 이전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드리는 찬양예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작은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따뜻한 가족예배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부부선교회가 준비하는 예배이지만, 부부선교

회 회원만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어린 자녀로 인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 예배 참석을 망설였던 부모님들도 부담 없이 오셔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모든 가정을 향한 따뜻한 초대

자녀와 함께하는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와 부모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예배가 각 가정에 잔잔한 기쁨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모든 가정을 이 자리에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 부부선교회

- 일 시 : 주일 오후 2시~3시
- 장 소 : 50주년기념관 3층 유년부실(302호)



## 함께 자라온 교사로서의 8년

2026년  
사랑하는  
3학년 4반  
친구들과 함께



### 8년 차 교사가 되기까지

고등부 교사로서의 처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거창한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락 고등부라는 공동체가 좋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했던 공간을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여기에 조금 더 있고 싶어 교사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 단순한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서 쓰시기 위해 사용하셨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박지은 성도  
강동·송파교구  
고등부 교사

### 아이들과 함께 자라며 만난 하나님

고등부의 다양한 자리에서 섬겼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던 담임의 자리였습니다. 수련회 초 담임이나 반 담임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알아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기적처럼 발걸음을 돌린 친구, 갑자기 닥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다가 회복된 친구,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친구들의 가정과 진로의 문제가 어느 순간 정리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 또한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챙겨 줘야 할 귀여운 동생들로만 보았다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크고 귀하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와 수련회 시간마다 뜨겁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로 뛰는 모습,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기도과,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겠구나.” 하는 깨달음 역시 이 아이들을 통해 배웁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온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 하나님의 일꾼 자리에서 있는 것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를 매우 좋아해서 종종 나누곤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연회장에 앉아 있던 귀한 손님들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시키는 대로 물을 떠 나



르던 하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몇 년을 지나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기도 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분명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제가 누린 가장 큰 복은 물을 떠 온 하인만이 아는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인 많은 동료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께서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나 성격, 체력 등 여러 이유가 이 자리로 나서서 것을 주저하게 만들겠지만, 여러분이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함께 쓰임받고 계신 사랑하는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만남**

# 무너지고 힘들 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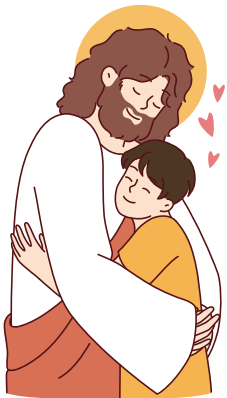


김어진  
고등부

## 습관 같던 예배, 처음 마음이 깨어난 여름수련회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다기보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고 ‘원래 그랬으니까.’,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예배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본 여름수련회가 제 신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깨달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3학년에는 특별활동반 회장으로서 열심히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졌으며,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점점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었고,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여름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중등부 여름수련회에 갔던 때처럼, 이번에도 결국 주변의 권유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치고 무너져 있던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이 큰 위로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게는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 경험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 무너진 마음 앞에 다시 찾아와 주신 하나님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겪은 사소한 문제들과 학업,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지치게 되었고, 고등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신앙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활동이 부담스럽게 느껴

## 다시 일으키신 은혜, 이제는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자 학생회에 지원하여, 현재는 학생회의 총무로서 고등부를 섬기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지치고 무너질 때가 오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기도합니다. **만남**

## 사춘기 한가운데, 하나님은 중등부를 세우십니다



배윤준 집사  
강동·송파교구  
중등부 교사

코로나가 한창이던 어느 봄날, 저는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사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중학생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싹트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중학생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 2023년에 중등부 교사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춘기 한가운데서 만난 '엄청난' 중등부

지난 3년 동안 초보 교사가 경험한 중등부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사춘기의 풍파 속에서 치열한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학생들을 보면, 비록 구석에서 모자를 뒤집어쓰고 무뚝뚝한 표정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입니다. 또한 '본업이 중등부 교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중등부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석하며 모든 일에 가장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신 곳입니다. 특히 도

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족집게 과외를 받으신 듯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매주 전해 주시고, 목이 쉬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매 순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곳이 바로 중등부입니다.

### 기도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를 향한 소망

요즘 저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학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찬양 가사처럼, 중등부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공간이며, 저에게도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며 은혜를 누리는 공간입니다. 혹시 중학생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이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 중등부 수련회에 헬퍼로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선생님의 기도 위에 더 단단해진 믿음



홍태인  
중등부



찬양팀  
수련회 때  
단체사진

### 수련회에서 더 깊이 만난 하나님

중등부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특별하고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수련회였습니다. 평소에도 예배와 모임을 통해 은혜를 누렸지만, 수련회는 저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익숙함 속에 지나쳤던 예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저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찬양,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것을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사랑과 헌신

이번 수련회를 통해 또 하나 깊이 느낀 것은 선생님들의 사

랑과 헌신이었습니다. 늘 예배와 모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섬김이 있었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섬겨 주시는 모습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에 저는 불편함 없이 말씀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그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에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 공동체 안에서 더 단단해진 믿음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저의 믿음은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단순히 수련회에서 받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신앙은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간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싶습니다. **만남**

# 사랑은 뭔가요?

웹툰작가\_노원교구



그리고 어쩌면 그분 혼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보단,



## 처음 온 벗도, 꿈꾸는 벗도, 함께 걷는 대학부

시험을 준비하는 벗님도,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린 새 벗님도, 회복과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은 리더들도 있습니다. 영락교회 대학부의 다섯 마을은 서로 다른 자리와 속도로 걷는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 <베드로마을 장지성 벗님>



베드로마을은 수능을 다시 준비하거나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벗님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베드로마을은 세상의 평가와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치열한 일상에서도 서로를 향한 위로와 기도로 숨을 고르며 편안히 기대어 설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 같은 공동체입니다. 꿈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마을 벗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웰컴마을 최서현 벗님>



웰컴마을은 새 벗님을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하며, 교회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마을입니다. 처음 오는 새 벗님들에게는 따뜻한 인사와 다정한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웰컴마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입니다. 낯설고 어색한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맞이하고, 새 벗님이 편안하게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새 벗님들이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웰컴마을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며, 가장 따뜻하게 맞이하는 공동체입니다.



### 〈바울마을 흥준영 벗님〉



바울마을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사랑과 회복을 누리고, 그 은혜를 벗님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리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 쉽지 않지만, 바울마을은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걸어가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은혜가 리더들에게 머무르지 않고, 벗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바울마을의 모든 벗님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요셉마을 길성은 벗님〉



요셉마을은 다양한 모습과 배경을 지닌 벗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이루는 비빔밥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 가고 있습니다. 벗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따뜻함과 평안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제의 자리를 통해 벗님들 간의 나눔을 더욱 깊게 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다윗마을 임창대 벗님〉



다윗마을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벗님들이 주님 안에서 만나,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윗마을은 그동안 웰컴마을에서 함께하며 영락교회 대학부에 조금씩 자리 잡아 온 벗님들이 모인 마을입니다. 서로의 다양한 삶의 배경과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마을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 속에서, 소그룹 나눔과 일상의 작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윗마을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140여 년 전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선교사를 통해 복음으로 세워진 이화여대에는 그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호의 연세대, 지난 3월호의 숭실대 전도 부스에 이어, 이번엔 이화여대에서 타오르는 작은 복음의 불씨를 전합니다.

## 구름떼처럼 몰려온 학생들 이화여대 캠퍼스에 복음의 문이 열린다



- 1 천연염색 재료로 책갈피 만드는 체험과 나만의 수첩을 만들며 복음 전하는 체험 부스
- 2 학우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는 비즈 공예 체험 부스

### 체험 부스 위에 피어난 복음의 통로

이화여대 글로벌리더십개발원 LDI(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의 전도 부스 사역은 이화기독인학생연합(이하 이기연)의 '사랑의 컨베이어벨트' 행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도록 한 행사였습니다. 부스는 나만의 책갈피·키링 만들기, 캐리커처, 사진 찍기, 복음 나눔, 하나님께 편지 쓰기, 비즈 공예, 간식·성경 나눔 등 다양했습니다. 학생들이 부스 체험을 할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고, 대부분의 학생이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2024년 3월 행사에서는 162명이 복음을 듣고 80명이 영접했으며, 12월에는 74명이 복음을 듣고 37명이 영접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사랑의교회를 통해 떡볶이 차를 후원받아 복음을 들은 뒤 떡볶이·어묵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기연 공동대표였던 저는 떡볶이 차에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디자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277명이 복음을 듣고 175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김지윤  
전 이화기독인학생연합 대표  
이화여대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 찾아가는 전도에서 찾아오는 전도로

이를 계기로 이화여대 LDI는 2025년 3월부터 전도 부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감사하게도 사단법인 '참행복나눔은



◀ '사랑의 컨베이어벨트' 행사



▲ '사랑의 컨베이어벨트' 행사에서 사용된 떡볶이 푸드 트럭

동'으로부터 전도 카드, 간식, 비품 등을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수첩-책갈피-카드 만들기, 비즈 공예, 캐리커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존의 노방 전도는 학생들을 찾아가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체험 부스를 차리니, 많은 학생이 부스에 찾아와 즐겁게 참여하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전도에서 영혼들이 찾아오는 전도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구성원들도 전도 부스를 통해 '전도는 재미있다.'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전도 부스에서 즐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 캠퍼스 한복판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화여대 LDI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150여 회 전도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868명이 복음을 듣고 335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화여대 LDI는 전도 부스를 운영하면서 노방 전도도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도 부스를 통해 또 다른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하시고 더욱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도 부스를 통해 캠퍼스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도 부스에서 피어난 복음

이화여자대학교 전도 부스에서 책갈피, 다이어리 등을 만들며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천연 염색한 천으로 책갈피나 공책을 꾸미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관심사와 고민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나누며 전도했을 때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 부스를 통해 캠퍼스에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연정 간사  
이화여대 LDI

# 무너진 삶 끝에 다시 영락으로 돌아온 탕자, 십자가 앞에 울다



## 세상을 좇던 삶에 찾아온 무너짐

예전에 저는 세상의 화려함을 좇으며 세속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세상적 욕심이 크고 강해서 늘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며 타인과 나를 항상 비교하며 살았기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욕심에 끌려다니던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6월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고, 친한 동생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운 지인은 췌장암 등 병마와 씨름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연달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간 제가 움켜쥐고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고난을 겪었습니다.

## 방향 끝에 다시 찾은 영락교회

초라해진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전혀 알지 못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동네로 집을 이사했고,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지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보고자 절에도 가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천주교 학교에 다녔



남영희 성도  
동대문·중앙교구

기 때문에 동네 성당 주일미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힘만 들 뿐 삶은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영락교회가 생각났습니다. 15년 전 쯤 우연한 계기로 영락교회 광장에 딱 한 번 와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영락교회를 오게 되었고, 2025년 봄부터 영락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 웬지 모를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 매주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새가족으로 접수하고, 어머니도 모시고 함께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 예배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한 십자가

영락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과정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던 사실들이 점차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그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긴 후 지난 삶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바로 저입니다. 주님, 너무 늦게 돌아와 죄송합니다. 저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벽찬 감동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요즘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를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주님께 왔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

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는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자양육훈련 상반기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알지만, 성령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과목도 배우는 중입니다.

김운성 담임목사님,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 쓰임받게 되든,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 영락교회 공동체로 맞이한 새가족환영회

새가족부(부장 김호섭 장로)는 매년 세 차례 새가족환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새가족환영회가 2026년 3월 15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후 선교관 지하 제2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새가족 76명과 동반 가족 50명, 양육위원 및 함께한 성도 28명, 봉사자 39명, 목회자와 장로 6명, 총 199명이 참석하여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애찬을 나누며 교제했고, 담임목사님 내외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환영회를 통해 영락교회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새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영락교

회를 신앙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삼고, 아름다

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새가족환영회는 2026년 6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양승관 안수집사 \_ 새가족부 차장



# 엄마의 구역예배, 내 기도의 자리로 이어지다



## 낯선 길에서 배운 동행

낯선 길을 운전할 때는 항상 긴장한다.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경험을 믿거나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가다간 자칫 다른 길로 들까 노심초사... 터널의 빛 번짐은 눈을 피로하게 만든다. 소망교회 수양관을 찾아가는 길은 터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오십이 넘으니, 시력도 예전만 못하다. 이럴 때 같이 가는 동승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구 식구들을 태우고 가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가 보니 함께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어린 시절 구역예배의 온기

내가 아주 어렸을 때(아마도 초등학교 입학 전후), 엄마는 일찍 나가시면서 연탄아궁이를 활짝 열어 두고 가시곤 하셨다. 아궁이를 퐁퐁 막아 가난을 견디던 시절에도 그날은 항상 예외였다. 어린 나는 혼자 놀다가 따스한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다. 음정은 서툰데 불안했지만, 지금까지도 각인된 찬송가 가사와 한



강미정 집사  
안양·수원교구  
11구역장

절씩 돌아가면서 읽던 성경 말씀, 발이 저려 다리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두 눈을 꼭 감고 맛난 수제비나 콩국수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구역예배... 구역예배는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석이 힘들어졌지만, 교회에서 뵈거나 자주 우리 집 대소사에 굶은일을 맡아 하시던 권사님과 권찰님은 여전히 나를 예뻐해주셨다.

그러다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을 때, 큰 슬픔을 마주했다. 엄마는 새벽기도를 가시던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슬픔을 견딜 힘이 없어 멍한 상태로 빈소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만 있을 때였다. 어린 시절 나와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던 강 집사님과 서 권찰님이 먼저 오셔서 말없이 나를 안아 주셨고, 서로 바라보며 하염없이 함께 울며 그렇게 엄마의 천국 환송을 같이했다.

## 결단의 예배를 앞두고

구역장수련회 중 ‘결단의 예배’ 대표기도를 맡아달라는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구역장을 맡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는데, 대표기도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무슨 용기로 하겠다고 했을까? 이내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릴 적 따스한 아랫목의 기억,

그리고 유년 시절 내 가족과도 같았던 집사님과 권찰님이 내가 떠올리는 구역의 이미지였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구역장과 기도도 덜컥 맡겠다고 했던 것 같다.

소망교회 수양관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본당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 양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쉽고 위로, 충진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다. 카운슬러가 되어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특강과 복화술 공연은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특히 복화술 공연 후의 축복의 시간과 저녁 결단예배 뒤에 이어진 축복의 시간은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 복화술에 이은 축복의 자리에는 대표기도에 대한 부담으로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서 기도문을 읽고 또 읽으며 준비했으나 긴장과 떨림은 완화되지 않았다.

### 사모하던 예배의 자리에서

드디어 결단의 예배 시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자의 자리에 앉았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준비 찬양 중,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예배의 자리에 가려다가 돌아가신 엄마가 사모하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너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라.’

두려움보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힘이 생겼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활기찬 마음으로 축복의 시간에 참여하며,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으며 새 힘을 얻는 소중함을 누릴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고 동역자들이 있어 외롭지 않게 섬길 수 있었고, 선배들이 있어 모범을 보며



1 2 지난 3월 20일~21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제1회 구역장수련회

봉사의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살던 저에게,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새로운 ‘혈연관계’와도 같은 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낯선 길을 운전해 가는 여정에서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과 함께, 좋은 동승자가 되어 길의 방향을 살피고 표지판을 읽어 주며 신호를 감지해 주는 이, 복잡한 길에서는 의논자가 되고 무료한 길에서는 대화자가 되어주는 따뜻한 구역 식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서로의 안전을 기도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남**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해외선교 페이지입니다.  
현지국가 사정으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 영락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소개합니다



신관섭 집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선교부 서기

많은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연령별로 구분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존재하고, 선교의 사명을 품고 맡은 역할에 충실한 것을 막연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한된 지면이지만,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의 사역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에 섬김과 헌신으로 동역하며 함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덧붙여, 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는 인구 소멸의 위기가 깊어지는 이 시대에, 3040 활성화 지원팀(1팀장 김의성 집사, 2팀장 이정휘 집사)을 조직·운영하며 젊은 세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선교회는 교회의 선교원칙과 정책에 따라, 각 남선교회별 중점지역과 연합지역 및 연합행사를 통해 기도회 교제, 선교에 힘쓰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연합지역은 국내선교, 해외선교, 북한선교, 의료선교, 학원선교, 미자립 교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래 각 남선교회 선교지역을 소개합니다.

### 제1남선교회

- 중점지역: 군선교, 진중세례식, 농어촌선교
- 대상: 만 63세 이상
- 장소: 선교관
- 시간: 금요기도회(매주) 17:00  
16:50 ~ 17:50 식사, 친교 (제1식당)  
17:50 ~ 19:30 찬양, 기도회 (선교관)

### 제2남선교회

- 중점지역: 해외선교, 영락가족운동회, 소그룹나눔
- 대상: 만 53세 ~ 만 62세
- 장소: 50주년기념관 604호
- 시간: 화요기도회(매주) 19:00  
18:00 ~ 19:00 식사, 친교 (제1식당)  
19:00 ~ 20:00 찬양, 말씀 (기념관 604호)  
20:00 ~ 20:45 소그룹나눔 (기념관 604호)

### 제3남선교회

- 중점지역: 인터넷해외선교봉사, 개척·미자립교회 지원
- 대상: 만 43세 ~ 만 52세
- 장소: 봉사관 304호
- 시간: 주일 모임 11:00 ~ 12:30 찬양, 친교

### 제4남선교회

- 중점지역: 보육원 섬김, 3040 지원 사업
- 대상: 만 42세 이하
- 장소: 영락유치원 엔젤동
- 시간: 매월 첫째, 셋째 주일  
14:00 ~ 15:00 예배, 교제



여전도회 또한 교회의 선교원칙과 정책에 따라 각 여전도회별 중점사역과 연합사역 및 연합행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이며 능동적으로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행사로는 여전도회 헌신예배(1월 셋째 주), 3·1절 기념예배(수요기도회), 선교바자회(매년 1회, 10월 중) 등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선교사역을 소개합니다.

### 제1여전도회

- 중점사역: 국내선교(농어촌선교)
- 대상: 만 63세 이상
- 장소: 교구별 심방준비회 장소
- 시간: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권찰공부 후)

### 제2여전도회

- 중점사역: 국내선교(군선교)
- 대상: 만 53세 ~ 만 62세
- 장소: 교구별 심방준비회 장소
- 시간: 매월 셋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권찰공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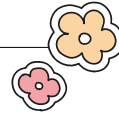
### 제3여전도회

- 중점사역: 해외선교
- 대상: 만 43세 ~ 만 52세
- 장소: 교육관 4층
- 시간: 매월 첫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 12:00

### 제4여전도회

- 중점사역: MK(선교사 자녀) 사역
- 대상: 만 42세 이하
- 장소: 봉사관 405호
- 시간: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난 화요일, 10:30

※ 문의: 선교부 ☎ 02-2280-0141, 010-5256-0143



#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 소망을 꽃피우다



이미숙 성도  
인천교구

## 기도의 자리에서 품게 된 전도의 마음

저는 어린 시절 동네 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시골 연합집회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습관처럼 양재동 청계산에 올라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산 곳곳이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했는데, 세월이 흐르며 그 소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라는 복음성가 가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 여겼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교회에 ‘나의전도학교’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1기부터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은 간절했지만 막상 전도하려니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삶의 여정을 통해 전도의 도구들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자궁암 말기인 80세 어르신인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제가 미리 취득해 두었던 자격증들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르신인 남은 시간이 길어야 2~3개월 정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감동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고, 지독한 병마의 냄새로 고통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네가 예전에 필리핀 쓰레기 마을 선교를 마음에 품은 적이 있지 않았니? 여기가 그곳보다 낫지 않겠느냐.’

저는 울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 죽음의 문턱에서 전한 천국 복음

어르신은 골수 불교 신자이셔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 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은 부처님께, 저는 하나님께 기도 합시다.”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용 기를 내어 여쭙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불상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음을, 우주 만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 뜻밖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회 에 나간 적이 있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날 이후 어르신은 통증이 올 때마다 제게 기도를 청하 셧습니다. 두 팔을 높이 들어 십자가 모양을 만드시고 “아 멘, 아멘!”을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2개월 10일 만에 어르 신은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문턱

에서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 지금도 이어지는 전도의 사명

저의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93세의 또 다른 여성 어르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과거 영 락교회 집사님이셨던 그분을 정결하게 준비시켜 하나님 품 으로 보내 드리는 일이 지금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매일 목 사님의 ‘말씀 산책’과 설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며 동행 하고 있습니다.

‘나의전도학교’를 통해 전도의 용기를 얻고, 현장에서 영 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 같은 자를 전도학교 스태프로 섬기게 하신 것 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이 전도학교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 어릴 때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심창근 전도사  
강동·송파교구  
교육부

### 믿음의 토대가 된 가정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자연스럽게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었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신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게 한 귀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 타지에서 다시 바라본 하나님

이후 유학의 기회를 얻어,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낮선 환경에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에서 리더로 섬기면서, 단순히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삶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 군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은혜

21살에 군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느껴지는 제한된 환경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이어 오던 신앙이 아니라,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던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 드리는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제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

니다.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신학의 길로 이어진 부르심

그 결과, 전역 이후에는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에 순종하며 신학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때의 만남은 제 신앙의 중심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락교회에서 강동·송파교구와 교육부 교육행정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고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충성되게 섬기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된 은혜의 잔치

- 뜨거웠던 영락의 제66회 산상기도회



##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둘째 날 오전에는 누가복음 24장 13~35절을 본문으로,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던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시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치유되고 사명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전하셨다. 저녁에는 충신교회 장로님들과 남선교중창단이 방문해 두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다. 이어 고린도후서 12장 7~10절 말씀과 함께 생사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던 목사님의 체험적 간증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했다.

'뿌리 깊은 신앙, 충만한 인생'의 주제로 이진호 목사(충신교회, 사진 1)를 강사로 모신 제66회 산상기도회가 지난 4월 22일(수)~24일(금)에 뜨겁게 진행되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었다.

## 은혜로 세워지는 신앙의 뿌리

첫째 날 저녁, 이牧사는 '오직 은혜로'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7절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다.



승윤영 성도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기자

## 믿음을 이어가는 삶의 사명

셋째 날 오전,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4~9절에서 '내가 물려줄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10대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여러 연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 주셨다. "부모가 본이 되어 자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



매일 저녁 50주년기념관 201,202호에서 어린이산상기도회가 열려 조별, 공동체 활동을 했다.



산상기도회 중 식사 7식이 제공되었는데 마지막 날 오전의 이복식 냉면은 큰 인기를 끌었다.

는 날 믿음의 자손으로 인해 감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부모의 사명을 다시 새기게 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조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이유

마지막 저녁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 1~1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흘려보내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곧 ‘내 삶의 이유’임을 되새기게 하셨으며 성도들

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본당에서는 양일간 강사 목사의 명쾌한 해설과 성경통독사의 인도에 따라 옥중서신과 에스더서를 함께 통독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기쁨을 누렸다. **(사진 2)**

### 다음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자리

50주년기념관과 유치부실에서는 ‘믿음 쭉쭉, 열매 팡팡!’이라는 주제로 4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산상기도회도 진행됐다. 저녁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요, 사랑 안에 나아가요.’라는 말씀 주제에 맞춰 신체 활동과 미술 활동이 이어지며 활기가 넘쳤다. 부모가 본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자녀들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자라나는 축복의 현장이었다.

###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본 시간

해마다 참여하는 산상기도회지만, 올해는 특별히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었다. 주님께 깊이 뿌리내려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리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날 소망을 품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안남**



사회봉사부 찬양팀 <예수 향기>의 부채춤 마당공연이 펼쳐져 성도들에게 재미를 더했다.

#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 열려



##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그 발자취를 따라

2026년 4월,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4월 12~18일)을 맞이하여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 유산을 기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목회자 한경직 캠프 4월 6~10일

기념주간에 앞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인도네시아 목회자 한경직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경직상 수상자인 인도네시아 송광옥 선교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15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의 발자취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락교회, 숭실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목사 우거처 등을 두루 순례하며 한경직 목사의 사역이 한국 교회에 남긴 소중한 유산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특별히 4월 8일 수요일 2부 예배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을 특송으로 드리며 영락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목회자 한경직 캠프는 한경직 목사의 정신이 전 세계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한경직 목사 기념예배 4월 12일

기념주간에 문을 연 4월 12일, 영락교회 본당에서 한경직 목사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한경직 목사가 직접 작사·작곡하신 찬송가 444장으로 시작되어, 성도들의 마음을 한층 깊은 묵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

- 1 숭실대학교 한경직목사기념관 앞 한경직 목사 동상 앞에서
-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_아펜젤러 선교사 모원 앞에서
- 3 장로회신학대학교 갈뱅과 마포삼열 선교사 흉상 앞에서



4 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신화 장로가 기도를 인도했으며, 2025년 환경직상 수상자인 세프리아누스 요하니스 아도니스 목사(Seprianus Yohanis Adonis)가 “나의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프리아누스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간증과 함께 전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오지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유를

묻기도 했지만, 예레미야 29장 4~7절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아동 학습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돌보며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환경직상이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음을 밝히며,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환경직 목사의 신앙과 섬김의 정신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환경직목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운성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배에는 환경직 목사 유가족을 비롯하여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송실대학교 이운재 총장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세프리아누스 목사는 4월 11일 입국하여 영락교회 안식관에 머무르며 기념주간 일정에 참여했습니다. 예배 전에는 담임목사와 차담을 통해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예배 후에



5 기념예배에서 설교하는 세프리아누스 목사(오른쪽)와 통역하는 손영신 선교사



6 제2회 월드비전 환경직상 수상자 세프리아누스 목사 부부



김윤성 담임목사와 함께한 다과 및 환송



한경직 목사 추도예배

는 관계자들과 식사를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14일에는 CTS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역과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목회와 학업의 방향을 고민하던 시절, 진학을 권유받았던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4월 16일 출국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한경직 목사 추도예배 4월 18일

기념주간의 마지막 날인 4월 18일에는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추도예배를 드렸습니다. 묘원을 찾은 성도들은

한경직 목사의 묘소 앞에서 그 신앙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김충손 은퇴장로의 기도에 이은 김윤성 목사의 '바울처럼 말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은,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 바울의 삶과 어떻게 닮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역자 특송으로 올려 퍼진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은 목사님의 삶과 소명이 되새기게 했으며,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추도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공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 인도네시아 목회자 한경직 캠프 참가 소감

느헤미야 목사(인도네시아 서티모르 꾸방, GCSI 교단)

영락교회, 숭실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방문하며 한경직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삶의 여정, 그리고 다양한 사역의 발자취를 통해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여러 교단과 신학교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느헤미야 목사의 감사패 증정 후 포옹

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저의 고향 서티모르 Bone 마을에 'SMPK Arastamar Bone'(아라스타마르 기독교 중학교)를 세워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사역의 현장을 잠시 떠나 이곳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재충전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돌보는 시간도 주어졌고, 남산, 명동, 경복궁 등 한국의 아름다운 곳도 함께 둘러보며 풍성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한 세심한 사랑의 준비였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맞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는 국경을 초월한 믿는 자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장 김운성 목사

님을 비롯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목사는 송광옥 선교사가 설립한 SETIA 아라스따마르 신학교 졸업생으로, 현재 GCSI 교단 소속 마라나타교회 담임목사이자 SETIA 아라스따마르 신학교 교학처장 및 은혜법인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목사에게 기념품 증정

#### 마르쿠스 아미드 목사(인도네시아 서부 칼리만탄, GDB 교단장)

샬롬! Puji Tuhan(할렐루야)!

저희 다약교회(Gereja Dayak Borneo)는 2014년 설립된 이래 현재 28개 교회와 10개 선교 지부, 2,500명의 성도와 함께 칼리만탄 섬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다약족의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이번이 저의 두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처음 방문 이후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아내 Wisye Bedelina와 함께 올 수 있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배우며 말씀과 교제 가운데 깊이 재충전되었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열정을 얻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마치며 한 가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을 인도네시아 보르네

오/칼리만탄의 적도 열대우림으로 초대하여, 그 땅에서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꿈입니다. 도착한 순간부터 떠나는 날까지 온 마음으로 섬겨 주신 한경직 목사기념사업회 임원 여러분과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마르쿠스 아미드 목사는 현재 GDB(Gereja Dayak Borneo) 교단장 및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서부 칼리만탄 SETIA Ngabang 신학교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서부 칼리만탄 Landak군 3선 군의원 및 Pontianak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 '한경직 목사 기념예배'에서 수상자 선정에 협력한 한국월드비전 조명한 회장이 직접 수상자를 소개했고, 한경직 목사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이 편지를 『만남』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이곳에 게재합니다.



## 한경직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을 직접 뵈는 적이 없지만, 목사님을 존경하며 학생과 청년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목사님께서 세우신 월드비전을 섬기고 있는 조명한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을 깊이 그리워하며,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더 크게 남아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 그 삶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 남겨진 것은 화려한 재산도, 축적된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경 하나, 성경책 한 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신 삶, 그 자체였습니다.

목사님은 가난을 말로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나눔을 권면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나 붙잡고 싶을 템플턴상 상금 백만 불을 조건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셨고,

추운 겨울, 한 성도가 정성껏 마련해 드린 코트는 다음 날 아침, 교회 앞의 한 노숙자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목사님, 제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업적'이 아니라 목사님의 '선택'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셨고, 상처를 볼 때는 신 화해를 선택하셨으며, 분열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명예보다 섬김을 선택하셨으며,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셨던 그 삶.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살아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2021년 목사님의 이름으로 월드비전 한경직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을 온몸으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묵묵히 살아내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찾아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또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제2회 환경직상을 위해 전 세계 20개국에서 2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수상자로 인도네시아 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세프리아누스 목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 없이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참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티모르 지역은 아동 발육 부진과 조혼, 폭력이 만연한 극심한 가난의 땅입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번듯한 예배당이 없지만, 42개의 교회를 통해 4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부모 교육과 자립을 위해 25개의 여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세 자녀 외에도 여덟 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11명의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일조로 과부들의 집을 지어주었고, 월드비전과 함께 절망의 마을들을 희망의 공동체로 바꾸고 있습니다. 종교와 제도의 벽을 넘어 고난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함께 세우는 그의 삶은 마치 살아 있는 복음과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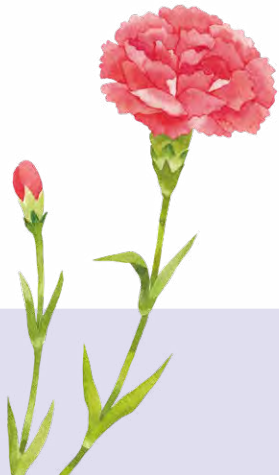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월드비전 국제총회에서 제2회 환경직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지도자들이 그의 헌신 앞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뿌리신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셨던 영락교회와 월드비전, 그리고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저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환경직 목사님 기념예배 강단에서  
한국월드비전 회장 조명환 드림



##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 동향



오세정 집사  
서초교구  
인천성모병원 외과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연간 10만 명당 134.5명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74.5명에 비해 지난 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이다. 유방은 여성에게 있어 모성과 여성성의 상징으로,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팔다리 하나를 잃은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암이 그러하듯 유방암 역시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없으며, 유방암의 유발 인자로 추정되는 것들을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 유방암의 위험인자

유방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모녀 간 또는 자매 간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유방 종괴의 조직검사서 비정형중식이나 상피내소염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출산이나 수유 경험이 없거나 늦은 초산 등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밖에 여성호르몬제 복용(피임약 포함), 비만, 알코올, 카페인, 흡연, 방사선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방암의 증상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유방 내에서 만져지는 덩어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끔 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림프절이 부어올라 만져지는 것이다. 말기 또는 염증성 유방암을 제외하고는 통증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을 거의 동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있는 유방 조직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 밖에도 피부나 유두의 함몰, 좌우 유방의 심한 비대칭, 피부가 부어올라 두드러진 모공으로 인하여 피부가 굴껍질처럼 보이거나,

[그림 1]



유방에서 멍울이 만져짐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짐



유방 피부의 함몰



좌우 유방의 비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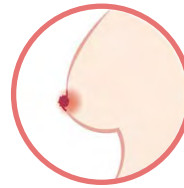
유방 피부가 굴껍질 같은 모양으로 변함



유두 함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옴



유두가 습진같이 헐고 진물이 나옴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나 유륜의 습진 및 진물 등의 피부질환이 나타난다면,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더라도 주의를 요한다(그림 1).

### 유방암의 진단

유방암의 진단 방법은 여성 자신에 의한 자가검진,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유방X선촬영 또는 초음파촬영과 같은 영상진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가검진은 자신의 신체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 비용이 들지 않고 자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공연히 유방암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조장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자가검진은 의사의 진찰 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시기적으로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1주일 정도 경과 후, 유방의 부종과 울혈 상태가 사라지면 시행하도록 한다.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폐경 후 여성은 매월 기억하기 편한 날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자가검진 방법은

한국유방암학회(www.kbcs.or.kr)나 한국유방건강재단(www.kbcf.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한국유방암학회가 권하는 연령별 유방검진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유방암의 치료

30세 이후 :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 : 2년 간격, 의사에 의한 임상검진

40세 이후 : 1~2년 간격,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

고위험군 : 수시, 의사와 상담

유방암의 치료는 외과적 절제술이 기본이다. 유방암은 크게 비침습암과 침습암으로 나누는데, 암이 발생한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기저막을 침범하기 전 상태를 비침습암, 즉 상피내암(또는 제자리암)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침습암인 경우에는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유방전절제술 또는 부분유

방절제술과 방사선치료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침습 암인 경우는 근치수술 후에도 미세하게나마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가능성 때문에 병기 및 암종의 특성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방사선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다.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광범위한 수술이 표준치료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금기증(종양이 너무 크거나, 많이 진행되었거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만 없으면 암종을 포함한 주위 일부 유방조직만 부분절제하고 겨드랑이 림프절도 소위 감시림프절(암종에서 가장 먼저 림프액이 도달하는 림프절)만 절제함으로써 유방을 보존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전절제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동시에 유방재건술을 시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암종에 대해서는 종양이 크거나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로 많이 진행되었어도 항암화학요법을 선행함으로써 암종의 크기와 림프절 전이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전절제술을 계획했던 경우도 부분절제술로 전환하여 유방을 보존할 기회가 크게 늘었다. 항암화학요법은 병기와 암종의 악성도에 따라 시행을 결정하는데, 종양이 너무 크거나, 작더라도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많이 진행되었거나, 종양이 작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종의 악성도가 높은 경우에 시행한다. 암종의 악성도는 일반적으로 호르몬수용체, HER2 암유전자, 세포분열지수를 표지자로 삼아 호르몬수용체 양성, HER2 암유전자 음성, 낮은 세포분열지수인 경우 가장 악성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환자에서는 호르몬치료제를

사용한다. 폐경 전에는 난소의 여성호르몬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외과적 절제나 약물 투여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므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제를 사용한다. 폐경 후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폐경 후 지방조직이나 부신 등에서 소량으로 생산되는 에스트로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들 약물은 모두 부작용으로 폐경 후 증상(열감, 안면홍조, 발한 등)을 동반한다. 타목시펜은 20~30%의 환자에서 자궁내막증식이 발생할 수 있고, 0.1%에서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요하며, 드물게 혈전증도 발생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주요한 부작용은 골다공증으로,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타목시펜 사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고지혈증,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

HER2 암유전자는 유방암 환자의 약 15%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며, 이 경우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단독 사용보다는 항암화학요법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며 1년간 투여한다. 이론적으로 표적치료제는 HER2 암유전자를 발현하는 암세포에만 작용할 것이므로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드물게 심부전 발생 보고가 있어 심기능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방사선치료는 부분유방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4개 이상이거나, 병리조직소견에서 절제면에 잔류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행한다. **만남**

#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 서울 10만 명 운집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기도와 행진으로 이어진 대규모 집회



지난 3월 28일 시청광장에서 대한문, 광화문을 거쳐 효자동에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가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약 10만 명의 성도와 시민으로 가득 찼다. 전국에서 온 성도와 영락교회 성도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부 기도회, 2부 예배, 3부 국민대회, 4부 퍼레이드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 오산리금식기도원에서 연합금요철야기도회를 한 바 있다.



### 이 자리가 갈멜산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대회장을 맡은 김운성 목사는 이번 집회가 단순한 반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실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책임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음을 역설했다.

“이름만 들으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사태의 심각함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 있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대부분의 국민에게 여러분이 직접 가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 진실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향후 한국 교회 과제로 부각

거룩한 방파제는 ‘사회적 악법인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고자 탄생한 순수 시민단체’이다. 이번 대회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참여를 요청하며, 사회와 다음세대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종교의 자유 침해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남** 취재 임미 기자

# 영락시어터 5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국제시장** (Ode to My Father, 2014) **12** 2시간 6분

**3일**

**감독:** 윤제균 **출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정진영, 장영남, 라미란, 김슬기 외

1950년 한국전쟁 통해 부산으로 피난 온 덕수는 전쟁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부산국제시장에서 고모의 잡화점 '꽃분이네'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모두가 어려웠던 그 시절, 남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독일 탄광으로 떠난 덕수는 첫사랑이자 평생의 동반자 영자를 만난다. 그는 가족 삶의 터전인 '꽃분이네'를 지키고자, 선장이라는 오랜 꿈을 접고 다시금 포화 속 베트남으로 향한다.

**벤허** (BEN HUR, 1959) **All** 3시간 34분(상/하)

**10일 / 17일**

**감독:** 윌리엄 와일러 **출연:** 찰턴 헤스턴, 스티븐 보이드, 잭 호킨스

서기 26년 로마 제국기, 예루살렘의 유대 귀족 유다 벤허는 어린 시절 친구 멧살라와 재회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행진하던 중 벤허 여동생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고, 주둔사령관으로 따르던 멧살라는 이를 빌미로 벤허 가족을 반역죄로 몰아 넣는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갇히고, 벤허는 재산을 빼앗긴 채 로마 함대의 노예로 끌려간다.



**무명 無名** (Nameless, 다큐멘터리, 2025) **12** 1시간 43분

**북한선교부 영화상영**  
**24일 오후 3시**

**감독:** 유진주 **내레이션:** 하정우

"나는 조선과 조선인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1896년, 노리마츠는 조선에서 온 한 남자로부터 조선의 국모가 일본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그는 일본인으로서의 죄책감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내던 조선 땅으로 향한다. 그로부터 수년 후, 노리마츠의 정신을 이은 또 한 명의 일본인이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곳, 조선으로 향한다.

**카시오페아** (Cassiopeia, 2022) **12** 1시간 42분

**31일**

**감독:** 신연식 **출연:** 안성기, 서현진, 주예림 외

이혼 후, 변호사이자 엄마로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진은 딸 지나의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수진을 위해 아빠 인우가 손녀를 돌보면서 세 사람은 함께 살게 된다. 얼마 후 수진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수진을 위해 인우는 수진의 걸을 지키고, 기억을 잃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절한 동행이 시작된다.



# 부활의 증인이 되자 부활의 꽃을 피운 부활절 음악회 개최

01



사진제공: 파이낸셜뉴스

진행됐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선교부 문화사역팀의 뮤지컬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장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환호는 곧 멀리서와 조롱으로 바뀌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목소리가 커지자 긴장이 감돌았다.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마리아가 부르는 '주 하나님 크시도다'는 우리 모두의 눈물ियो, 고백이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천사의 노랫소리와 함께 기쁨의 찬양이 다시 높아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숨 쉬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만지셨다.

취재 최한나 신입기자

부활주일을 맞은 4월 5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에서 5부까지 말씀을 전한 김운성 담임목사는 '복음, 부활의 꽃을 피우다(사도행전 2:22~33)'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완성이 부활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 부활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란다"라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다.

각 예배 후 전 교인에게 기념 달걀을 선물하며 부활의 소망을 나누었다. 한편, 베다니광장에서는 문화선교팀 스티그마, 지크로스팀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쳐 성도들에게 축제 분위기로 부활의 기쁨을 전했다.

## 부활절 음악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을 축하하는 부활절 음악회가 4월 첫 번째 주일, 벚꽃잎이 흩날리는 봄 저녁에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할렐루야찬양대의 합창과 호산나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How Great Thou Art(주 하나님 크시도다)'라는 주제로



사진제공: 이성환 안수집사



## 2026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 가까이'

02

2026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본당에서 열렸다. '그리스도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새벽기도회에 영락 가족들은 매일 아침 귀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새벽을 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거룩한 여

정에 참여했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사무엘상 8:7/마태복음 27:37)',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사무엘상 12:23/누가복음 22:44)', '가장 위대한 순종(사무엘상 15:22/누가복음 22:42)', '빛난 옷을 벗으시다(사무엘상 16:7/이사야 53:2~3)', '어

떤 나라인가(사무엘상 20:31/누가복음 23:34)', '죽음에서 싹트는 생명(사무엘상 23:14/요한복음 19:42)'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 목사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가장 위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갖자."라고 강조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 소년부, 부활주일 기념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 열어

지난 4월 5일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을 맞은 소년부(부장 안 칠 장로)는 '부활주일 기념 계란 꾸미기 콘테스트'를 열었다. 학생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더욱 알아가며 작은 손으로 집중하여 계란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꾸미는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즐겁게 참여했다. 또한 교사들과 함께 삶은 계란에 펜, 스티커, 테이프, 펠트

03



지 등으로 색칠하고 장식하는 반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정성껏 포장하여 전시하며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12일에는 전시된 작품에 스티커 붙이기 투표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하여 우수 작품으로 소년1부 6학년 7반과 소

년2부 5학년 4반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19일에는 학생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으며 뜻깊은 시상식으로 학생들을 격려했다.

취재 이지민 신입기자

## ‘복음의 능력으로’ 영락의 미래를 꿈꾸는 3040 연합예배

04

지난 4월 19일 본당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3040세대’를 주제로 연합찬양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부부선교회와 청년선교회 등 3040세대 자치회가 주관한 가운데, 전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영적 축제의 장이 되었다.

예배 중 갈릴리찬양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를 찬양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오병훈 목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8절을 통해 ‘영락교회의 미래가 보

이십니까?’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오목사는 이 시대 교회의 든든한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세대가 복음의 주역으로 바로 서기를 권면하며 참석한 성

도들을 간절히 축복했다. 말씀 후에는 3040 연합팀이 뜨거운 열정으로 특별찬양을 드려 예배의 기쁨을 더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을 모았다.

취재 최민혁 신입기자



## 역사자료실, 마당 홍보 행사 진행

05

역사자료실(위원장 이일호 장로)은 4월 19일 주일 교회 마당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성도들에게 역사자료실의 사역을 알리고, 기록의

중요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발자취를 담은 사료를 통해 그 가치와 역사자료실 사역을 설명했다. 성도들은 역사자료실

사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많은 성도가 귀한 사진과 문서 등 기록물을 기증하며 뜻을 함께했다. 기증된 사료는 향후 정리 및 보존 과정을 거쳐 교회의 역사 기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를 통해 기록을 보존하는 사역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역사자료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집과 기증을 통해 교회의 유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풍성한 역사자료실 사역이 기대된다.

제공 역사자료실



##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캠페인 및 헌신 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4월 26일 주일, 성도들의 성원 속에 후원자 모집 캠페인과 헌신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캠페인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성도들의 따뜻한 손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내일을 살아

06



갈 큰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동참해 주신 '어깨동무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재단은 더욱 투명하고 진실하게 섬김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작은 나눔은 누군

가에게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걸음마다 따뜻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영락사회복지재단  
02)2265-7023

### 애독자 참여코너



5월호 『만남』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만남』 제작을 위해 성도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아래 내용을 적어 제출(QR코드 또는 이메일 [youngnak-hb@daum.net](mailto:youngnak-hb@daum.net)) 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다음 호에 당첨자 발표 예정 / 당첨 응모나 기사 추천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 소속(교구/봉사부서/교육부/기타): \_\_\_\_\_
- 이번 달 『만남』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기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이유나 소감도 간단히 적어 주세요.  
\_\_\_\_\_
- 평소 알고 싶거나 『만남』에 추가로 소개되길 원하는 내용을 적어 주세요.  
\_\_\_\_\_
- 주변에서 『만남』 기사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나 교우들에 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채택 시 추후 취재를 통해 기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_\_\_\_\_

지난 호 당첨을 축하합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김지연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봉사관 503호  
홍보출판부로 오셔서  
선물을 수령해 가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롬1:16~17)

리모리6

# 영락가족운동회

다음세대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

일시 2026. 5. 16 (토) 09:00 ~ 15:30

장소 대광고등학교

주최 선교부



15:00  
경품추첨



"올해 운동회는 몇가지 즐거움이 더해졌어요"

- 3세대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 전문 MC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해진 잔치!
- 도시락, 떡볶이, 부침개 등 푸짐한 먹거리!
- 에어바운스 외 6개 기구 어린이 놀이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Let the children come  
unto me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  
Carl Heinrich Bloch  
1834~1890

##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다

19세기 덴마크의 종교화가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의 <예수의 생애> 연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 10장 13~16절 내용이 배경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그 품에 안긴 아이에게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다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신뢰와 만족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 뒤편에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의 표정에서도 자신의 아이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물들의 얼굴과 의복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빛은 이 장면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거룩한 축복의 순간임을 보여 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때 부모의 소중한 아이였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단지 어린이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순수했던 어린이의 모습을 다시 그 품으로 초대하시는 듯합니다.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2026년 5월호 통권 625호

발행 2026. 5.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이신일 김정훈 김기선 박선이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사진기자 박홍기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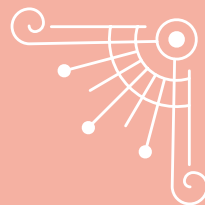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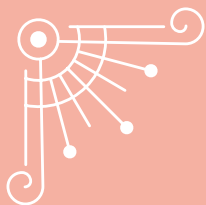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 표지설명



카네이션 한 송이에는 가정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워 준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사랑이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 3월

※ 교회 홈페이지 게재 기준



군입대 1 이호연

### 새아기

- 2 이윤준(이하일, 박은지 가정)
- 3 최유나(최광영, 장민아 가정)
- 4 김지후(김민재, 장수인 가정)
- 5 오연우(오준영, 김성은 가정)
- 6 길리아(길세환, 정보금 가정)
- 7 이한서(이준영, 장혜연 가정)



#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Let the children come unto me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Carl Heinrich Bloch)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14)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6)

▶ 작품 내용은 60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